

# 승례문 남지의 소방문화사적 고찰

조선훈

서울마포소방서

## A study on fire cultural history of Namji in Sungnyemun

Seon Ho Cho

Seoul Mapo Fire Station

### 요 약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소실된 승례문 문루의 복구 작업이 2013년 4월에 완료되었다. 승례문하면 화재가 먼저 생각날 정도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야 할 것이 남지(南池)이다. 현재 남지는 그 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 있지만 소방문화사적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지가 갖고 있는 소방문화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Keywords** : fire cultural history, Namji, Sungnyemun

### 1. 서 론

승례문은 600여년을 한자리에서 온갖 풍파를 견뎌가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재로 사라진 다음에서야 그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10일 화재 이후 4년여 동안 진행된 공사가 2013년 4월에 완료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보호를 위해 설치된 가림벽에 남지기회도(南池耆老會圖)를 그린 것이다. 남지의 탄생 배경에는 화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미있는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다.

본 연구는 승례문 남지가 담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고찰하고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남지가 갖고 있는 소방문화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 2. 남지의 소방문화사적 고찰

#### 2.1 한양도성의 방화시스템

조선 육백년 도읍인 한양은 정도 당시부터 풍수론이 전제된 대표적인 곳이다. 그렇지만 풍수학적으로 북쪽이 낮아서 물이 부족하고, 주산이 화산의 형국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sup>1)</sup> 따라서 방화장, 우물, 소방기구 비치 등과 같은 실질적인 방화시스템 구축 외에도 승례문 세로현판, 드므설치, 연못 건설과 같은 다각적인 풍수학적 조치도 취해졌다.

1) 『성종실록』 148권, 성종13년 11월9일 기사,

## 2.2 남지의 건설과 변천

성종 13년인 1482년 11월 9일 한명회는 도읍을 정할 당시 송례문 앞에 연못을 설치했던 것과 같이 이를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고 임금에게 아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지는 조선 건국 초에 처음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sup>2)</sup> 16세기를 전후하여 남지가 복구된 이후 한양의 명소로 사랑을 받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해 메워져 지금은 터였음을 알리는 표석만 남아있다.

## 2.3 남지건설의 비보풍수론적 평가

한국의 풍수는 중국과 달리 명당을 찾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흠결이 있는 땅이라도 사찰이나 탑 건립, 조림, 조산, 득수 등 여러 가지 풍수적 조치를 통해서 보다 좋은 땅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비보(裨補)’라고 한다.<sup>3)</sup> 남지는 바로 이런 비보풍수적 차원에서 건설되었으며 조경적 가치도 높았다.

## 2.4 남지출도 청동용두의 귀의 평가

남지가 소방문화사적으로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1926년 남지터에서 수습된 청동용두의 귀(靑銅龍頭之龜)이다. 경회루 연못에서도 청동룡이 출토된 바 있는 것처럼 용은 원래 불을 막는 영물로 숭상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발과 귀갑 부분이 분리되어 상하부가 나뉘는 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 안에서 중앙의 화(火)자를 24자의 수(水)자와 팔괘로 둘러싼 그림이 출토되어 남지가 화기방어 비보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

## 3. 정책제언 및 결론

남지는 화기방어 목적으로 풍수학적 조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용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건물밀집지에서의 방화선 역할과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시설도 된 것이다. 게다가 도시조경적 가치도 있으니 그야말로 소방문화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유적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현대 소방의 실정은 더 안타깝다. 그나마 서울시가 소방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하면서 남지의 의미를 담은 연못을 만들고 역사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문화정책적 산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삼성건축사사무소(2009), 「송례문화재수습부채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 문화재청(2009), 「송례문 기억, 아쉬움 그리고 내일: 송례문 화재 1주년 특별전시회」.
3.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6권, 『성종실록』 148권)
4. 최원석(2002),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pp.161-176.

2) 『태조실록』 6권, 태조3년 8월13일 기사,

3) 최원석(2002),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pp.162-164.